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음 2월 8일)

제1519호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100번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28



살려내라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접두어가 쏟아지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천 배제된 전병헌 의원의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 고 있다. 같은 날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3선의 주호영(대구 수성) 의원이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의 부당성을 강력 비난하 고 있다.

도내 공천 현역의원 '몰락' 충격파

4·13 총선 경선 결과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번이 속출하면서 각 정당 간 패권리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추풍낙엽과 같이 탈락되는가 하면 상대 당 후보에 맞춰 전략공천 카드에 대한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우수수.. '탈락'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도내 7곳에 대한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밝히며 전주를 선거구에 최종 후보 경선 승리자를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전주를 선거구 후보 여론조사 경선에서 51.7%를 얻어 48.3%를 얻은 이상직 후보를 3.4%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현역의원인 이상직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최 후보 본선행이 결정된 것이다.

최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다른 경선을 벌인 분들과 통합해 본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본선 진출 심장을 밝혔다.

그동안 조직력 등에서 앞선 이 의원 측은 내심 경선에서 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탈락이 충격파로 다가온 모양새다.

이 의원은 최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전에 전화 흥보(일명 TM)를 했으면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 현역들 우수수 '탈락'

더민주 이상직 의원, 경선 패배 박민수 의원도 안호영에 밀려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출마 최규성 의원, 무소속 고심 중

이 의원이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도내에서 현역 탈락자는 전정희 의원과 함께 최규성(김제)·강동원(남원·순창)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현역의 수모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여론조사에서는 박민수 의원(34.5%)이 안호영 후보(38.5%)에게 4%포인트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역 프리미엄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들에 대한 결선투표는 16일까지 진행돼 이르면 17일 오전을 전후해 탈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눈치싸움이 흡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 대국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선 후반전... 갈수록 눈치싸움 치열

1:1 확정지역은 전주 병 등 2곳 나머지 8곳, 상대 당 후보 따라 전략공천 카드도 일부 꺼낼 듯 국민의당, 더민주 후보 확정 기다려

동원 의원은 각각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해 설욕전을 펼치겠다는 각오가 만만찮다.

최규성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지역 지지층의 독려로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입장에선 현역들의 몰락으로 10개 선거구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선거구가 불안할 때이다.

▲경선 후반 갈수록 눈치싸움 치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눈치싸움이 흡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 대국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민씨(더민주당)과 녹색(국민의당)으로 대변되는 각 정당이 전북 10개 선거구에 얼마나 덫칠해질지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10개 선거구 중 1:1로 확정된 지역은 전주 병(김성주·정동영)과 정읍고성(하정열·유성엽) 단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곳은 상대당 후보 종량감 등에 따라 전략공천 카드도 일부 꺼낼 테세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으로 돌아선 김관영 의원(군산)과의 맞상대를 위해 최적의 선수를 에티케 찾고 있다.

이산을 둘도 빼놓을 수 없다.

이산을 현역인 전정희 의원과 3선의 조배숙 후보, 김연근 전도의원, 박기덕 후보까지 4명의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 등판을 하필없이 기다리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임정엽·이돈승 후보 등이 더민주당에 대한 전투 열의를 다시 가다듬고 있다.

전주 병은 국민의당의 전북권 교두보 확보는 물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정동영 후보와 더민주 김성주 의원과의 피할 수 없는 외나무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고민형기자

▶ 매일 INDEX

5면 전북도, 복지정책 청사진 마련

6면 마트산업 노동조합 출범

12면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발표

더민주, 공천 막바지 속 '진통'

이해찬·정호준 탈당

이 의원, 무소속 출마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을 위한 공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 된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해찬(세종) 의원이 공천결과에 반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기로 하는 등 정호준, 이미경 의원 등 낙천인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반면 이같은 공천 반발은 '작전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제기된다.

먼저 이 의원은 이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 공천 탈리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입장기자회견 통해 "잠시 제 영향 같은 더민주를 떠나려고 한다"며 "자 이해찬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며 "(컷오프의) 이유와 근거가 없다. 도덕상이든, 경쟁력이든, 의정 활동 평가든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김종인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대철 전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서울 중·성동을) 의원도 공권위의 결정에 반발, 탈당했다. 정 의원은 탈당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경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단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야하는 재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1승 4패로 마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어렵게 패배했다.

이세돌 9단은 15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마지막 5국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알파고의 벼를 넘지 못했다.

앞서 이세돌 9단은 1·2·3국에서 불계패를 선언했다. 5전 3승제에 따라 이번 대회는 알파고가 됐다. 경기는 승부와 상관없이 5국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4국에서 이세돌 9단은 알고리즘이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백78)를 던지며 인간의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알파고 대국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즐겁게 바둑을 뛰어서 내상(內傷)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어쨌든 한 판을 이겨서 부담감을 많이 덜었다"고 밝혔다.

/정해운 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